더 나눔 하우스 이야기…
벼랑 끝에서 피어나는 복음



박성원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더나눔하우스(The Nanoom House)는 지치고 소외된 한인 노숙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심는 사역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예배와 말씀 통독, 찬양과 기도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회복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며 각 사람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과 비전을 심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지체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더 나눔 하우스가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고령화, 실직, 가정의 붕괴, 육체적 · 정신적 질병, 그리고 다양한 중독으로 인해 삶의 쓰나미를 맞은 이들에게 남은 선택은 단지 "이 삶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뿐일 때가 많습니다. 거리의 노숙인들은 피할 수 없는 더위와 추위, 배고픔, 인종차별과 증오 범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더나눔하우스는 이들이 노숙인이 되기까지 겪었을 외로움과 서러움, 회환과 분노, 그리고 공포에 깊이 공감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준 사랑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류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가 아니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뉴욕, 빛 아래 가려진 또 다른 세계

맨해튼의 밤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는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벤치 위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 지하철을 떠돌며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삶의 벼랑 끝에서 더 이상 갈 곳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눔 하우스에서 시작된 기적들

거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5 년 동안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했고 폭행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가 더 나눔 하우스에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을 들으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쉘터를 청소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버려졌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붙잡힌 생명

또 한 형제는 모든 것을 잃고 조지워싱턴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삶을 끝내려던 순간, "정말 이렇게 끝낼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더나눔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회복

또 다른 형제는 모든 것을 잃고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는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노숙인 사역을 하며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과거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를 보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겨울 밤,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거리에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교회를 크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

더나눔하우스는 단순한 쉘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분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하루를 꿈꾸고, 재활에 성공하여 사회로 돌아가며, 자립하여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은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식사와 미용, 의료로 섬기는 분들, 그리고 헌신된 스테프와 동역자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성공한 사역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품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현 더나눔하우스 대표
뉴욕풍성한교회 담임 목사
숭실대 졸업
총신대신학대학원 졸업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졸업
현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동문회장
총신대신학대학원 전 동문회장
숭실대 뉴욕동문회장
미주숭실대동문회 이사장

PAM Chapel (개신교수도원교회)

처음에는 필리핀 간호사 부부를 위한 매주 성경공부를 진행하다가 자체건물 구입 후, 2016년 1월 10일 영어예배로 전환하다. 에스더 원장님이 설교와 상담, 결혼주례, 장례주례, 아기세례를 베풀었다. 지금까지 수도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16명이다. 수도원 교회 담임 목사는 김에스더 목사이다. 매주일 오전 10시에 정기 예배가 있고 예배 후 윤번제 친교 식사를 나누고 수도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한다. 매년 PA에 있는 Sight & Sound Theater 에 가서 단체로 Biblical Musical을 관람하고 식사하며 배운 것을 나누며 토론한다.

